

# 인터넷 건강정보! 의료 소비자들 스스로 보호할 판단 능력 필요

치료 정보의 경우는 그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환자 개인의 특성과 질병의 현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맹신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이런 점을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의료 소비자들 스스로 보호할 판단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인터넷 의료정보를 보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해서 자살한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다. 의과 대학생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의과 대학생들이 질병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 질병의 증상이 현재 자기 증상하고 비슷해서 혹시 내가 저 질병에 걸린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인데 인터넷의 의료정보를 읽다 보면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극단적으로 자살이라는 결과를 빚기도 하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병원을 찾을 때 병명을 가지고 찾아오지 않는다. 피로하고 몸이 말라서 병원을 찾아서 이런저런 검사를 해서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는 것이다. 병원에 오면서 저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어서 왔는데 치료해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피로를 증상으로 하는 병은 상당히 많다. 가장 흔한 것은 스트레스 등 정신적으로 피로한 것이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피

로다. 너무 일을 많이 하거나 생활의 리듬 파괴로 인한 것이다. 가장 적은 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것인데 질병도 당뇨병, 간장 질환, 신장 질환, 결핵, 감염, 갑상선 질환, 암 등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렇듯 진단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원인 질환을 각종 검사와 진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진단이 내려졌다고 모든 환자를 똑같이 치료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 방법은 약물 치료,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 수술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어떤 치료를 하는지는 환자의 상태, 갑상선의 크기, 갑상선의 크기가 커져서 주변 조직을 심하게 누르고 있을 때, 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한다.

증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홍수라고 할 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정보는 통합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의사의 지식과 결합이 되어야만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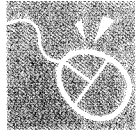


김영재  
교보생명 Health Care  
Center 원장

인터넷 의료정보를 보면 국립암정보센터나 대한의사협회와 네이버가 함께 하는 의료정보가 있으며 개별 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정보가 있다. 또한 상업적인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정보를 단순히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질병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형식의 정보 제공이 있다. 환우회 등과 같이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다.

자신의 증상을 각종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에 문의를 하여 얻어지는 답들의 경우에 의사가 답변을 해야 하는 경우에 의사는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한다.

대변에서 피가 나왔을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치질이라고 하면서 3~4일 좌욕을 하고 계속 피가 나오면 병원을 찾이라고 권유하고 있다. 이 정도면 훌륭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주스를 마셔라, 청국장을 먹어라 등 다양한 민간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대변에 피가 나오면 치질이나 치열이 가장 많은 원인 질환이다. 하지만 암이 있을 때도 피가 나올 수 있다. 동맥이 노출이 되어서 출혈이 된 것일 수도 있다. 출혈이 예상외로 많은 경우 쇼크에 빠질 수도 있다. 물론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의 경우는 암이 거의 없다. 50대 이상이라면 항상 암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결론은 꼭 병원에 가서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적을 수밖에 없다. 질문자들은 이런 대답을 성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답변만 믿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가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역시 질병 문제는 항상 병원에 가서 의사와 함께 상의를 하여야 하고 의사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

요즘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자기 증상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인터넷 정보가 상당히 자세히 되어 있고 때로는 의사들도 알기 어려운 고급 정보까지 제공되고 있어 전문가인 의사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심지어는 인터넷에서 권유하는 치료법을 의사에게 강요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의사의 지식을 시험해 보는 경우도 있다.

어찌 되었던 환자가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은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특히 만성 질환의 경우는 약보다도 환자의 적극적인 자기 몸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적극적 합병증 관리가 약물 복용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사들도 이들 만성 질환에 대한 각종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질병 관리에 환자 자신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와 상담하는 환자들은 의사를 긴장시키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나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의사 입장에서는 치료에 환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 많아졌고,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혹시



간과하기 쉬운 문제까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범람하는 의료정보의 진실성을 인터넷 사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의료정보의 내용을 파악하고 누가 제공한 것인지 참고문헌은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오래된 정보는 아닌지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을 가지고 의료정보 내용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으며 유해한 의료정보의 경우는 고발까지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학회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였으나 쏟아지는 의료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인원과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쉽지 않다. 쏟아지는 의료정보를 전부 하나하나 검색해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사실 아무리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를 찾아와  
상담하는 환자들은 의사를 긴장시키기는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나 환자 입장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인터넷 정보를 보다 보면 잘 듣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식품을 약보다 더 효과 좋고 부작용이 없다고 선전하는 경우가 있다.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간혹 복용하던 약을 끊고 이들 식품을 복용하기도 한다. 약 하나가 판매되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그 효능을 시험하고, 동물실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테스트 하여서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한 다음에 판매가 허가되는 것이다. 이들 약물 중 상당수가 특정 풀잎이나 식품 등에서 추출한 경우가 있다. 현재 약으로 허가되지 않는 식품 등

의 경우 그 안에 정말 효과 있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는 있지만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실험을 거치기도 전에 이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 바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환자들에게 팔리고 있다. 외국 같으면 돈 받고 먹어야 할 약들을 오히려 비싼 돈을 내고 먹고 있는 꼴이다.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질병에 관한 정보와 환우회에서 제공하는 질병 정보는 상당히 믿을 만한 것이다. 하지만 치료 정보의 경우는 그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과는 상관없이 환자 개인의 특성과 질병의 현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맹신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이런 점을 특히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 의료 소비자들 스스로 보호할 판단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증상이 나타나면 먼저 의사의 진찰을 받고 적정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살펴보고 혹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 진단 결과 단기간에 치료되지 않는 만성 질환의 경우는 인터넷에서 해당 질병 관련 정보를 많이 알아두어 관리하는데 적극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때 역시 상업적 사이트 보다는 위에서 말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 역시 반드시 담당 의사와 꼭 상의를 하여서 그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